

2018학년도 수능대비

문법 엑기스 노트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現 목동아레테언어논술학원

前 노량진이투스 (마감강사)

前 외교, 자사고 특강

[저서] 절대(絶對)국어 시리즈

Orbi Class

#1. 문법 공부를 위한 필수! 기본용어

음운 체계

1. 모음 : 음절(소리마디)을 이룰 수 있는 독립적인 소리
하늘·땅·사람[天地人] 삼재로 기본 3글자를 만들고, 가획하여 다른 글자를 만듦

① 단모음 : 소리 내는 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	앞(전설 모음)		뒤(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높음(고모음)	ㅣ	ㄱ	ㅡ	ㅈ
중간(중모음)	ㅕ	ㅗ	ㅜ	ㅛ
낮음(저모음)	ㅙ		ㅝ	

② 이중모음 : 발음할 때,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는 것

* 이중모음 = 반모음 + 단모음

2. 자음 : 모음과 만나야 소리가 나는 의존적인 소리

	조음 방법	위치	두 입술 [순음]	혀끝	센입천장 (경구개)	여린입천장 (연구개)	목청 사이	
안울림 소리	파열음 (공기의 흐름 막았다가 터짐)	예사소리(평음)	ㅂ	ㅃ		ㄱ		
		된소리(경음)	ㅃ	ㅆ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ㅑ		ㅋ		
	파찰음 (파열과 마찰 모두)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공기가 좁은 틈 사이로 새어 나감)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음절

최소 단위로서, 국어의 음절은 반드시 모음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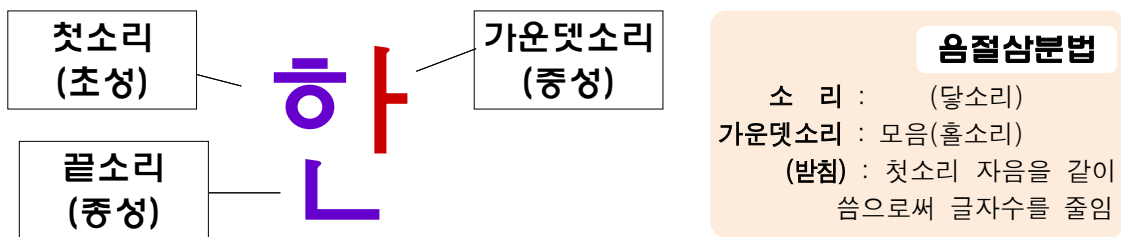
음절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으므로 모음에 붙어야 한다.

국어의 음절은 ‘아, 어, 여, 왜……’와 같이 **모음**만으로 되는 음절

‘안, 옥, 울, 열, 웬……’과 같이 **모음+자음**으로 되는 음절

‘가, 나, 교……’와 같이 **자음+모음**으로 되는 음절

‘강, 산, 달, 별……’과 같이 **자음+모음+자음**으로 되는 음절, 네 종류가 있다.



품사

형태 변화	기능	의미		예
가변어	용언	동사	움직임을 나타냄	달리다, 먹다, 자다, 공부하다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냄	예쁘다, 빠르다, 검다
불변어	체언	명사	이름을 가리킴	책, 사람, 전화기, 개
		대명사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	나, 너, 그, 우리, 그것
		수사	수(數), 순서를 나타냄	하나, 둘, 일, 이, 삼
	수식언	관형사	주로 체언을 꾸밈	한, 두, 옛, 오랜, 새
		부사	주로 용언을 꾸밈	정말, 매우, 참, 아주, 꽤
	관계언	조사	문장성분들 간의 관계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줌	이/가, 은/는, 을/를, 에게, 에서, 만, 도
독립언	감탄사	감탄, 부름, 대답 등	깡, 으, 야, 어이	

용언의 활용

‘활용’이란 용언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즉,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다.

• 어간 -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뜻을 지닌 줄기가 되는 부분이다.

• 어미 -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어간 뒤에 붙는다.

단어의 끝에 오는 ()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있다.

#2. 음운변동

[음운이란?]

: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

- 분절음운
- 비분절음운

[음운 변동, 표준발음규정]

- 발음할 때의 음운현상을 규정한 규칙

[음운 변동의 출제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파악하기
교체	1. 교체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2. 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
3. 탈락		자음탈락(ㅎ, ㅅ, ㄹ탈락), 모음탈락(ㅡ, ㅓ, 동음탈락)
4. 축약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모음축약
5. 첨가		사잇소리 현상, ㄴ첨가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끝소리 규칙]

앞	→	[입]
옷, 낫, 꽃, 바깥, 히을		[옴], [남], [꼰], [바깡], [히을]
밖, 부엌		[박], [부억]

[연음현상과 함께 이해]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 **그냥 연음하여 발음**

예) 옷이, 옷을, 값이, 값을, 낫으로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 **끝소리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연음**

예) 꽃 위, 옷 안, 옷 아래

(2) 된소리되기 (경음화)

: 두 개의 안울림소리(장애음)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장애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국밥 → 「국뺨」, 견고 → 「견꼬」, 없다 → 「업따」, 덧개 → 「덧깨」, 역도 → [역또], 젓소 → 전소 → [전쏘]
--

- 단, 어간말 자음이 ‘ㄴ, ㄹ’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

(끓고 [끓:꼬], 신고 [산:꼬], 갈 데가 [갈 떼가] 등)

2. 동화

(1) 자음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 비음화(ㅁ, ㄴ, ㅇ)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ㅂ, ㄸ, ㅌ → [ㅁ, ㄴ, ㅇ] / ㅁ, ㄴ 앞

(ㄴ) 유음 'ㄹ'이 비음 'ㅁ, ㅇ'을 만나면 비음 'ㄴ'으로 변화

ㄹ → [ㄴ] / ㅁ, ㅇ 앞

(ㄷ) ㅂ, ㄸ, ㅌ + ㄹ → [ㅁ, ㄴ, ㅇ] + [ㄴ]

예) 국물, 남루, 독립, 섬리 등

- 유음화(ㄹ)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ㄴ' 과 'ㄹ' 이 만났을 때 'ㄴ' 이 'ㄹ' 로 바뀌는 현상 ㄴ-ㄹ / ㄹ의 앞이나 뒤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설측음화)
	칼날 → [칼랄], 찰나 → [찰라], 말눈 → [말룬], 실날같이 → 실랄가티 → [실랄가치] 앓는 → 앓는 → [알른], 끌는 → 끌는 → [끌른], 훑는 → 훑는 → [훑른]

<예외>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딤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2) 모음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설모음화 : 후행 'ㅣ'의 영향으로 선행 'ㅏ, ㅑ, ㅓ, ㅕ'가 'ㅘ, ㅙ, ㅚ, ㅜ'로 바뀌는 현상

예> 아비 → [애비], 잡히다 → 자피다 → [재피다], 먹이다 → 머기다 → [메기다]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설모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구개음화

: 'ㄷ, ㅌ' 등의 치조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 ㅊ' 등의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예) 달히어 [다티어→다치어→다쳐], 굳히다[구티다→구치다]

3. 탈락 / 축약

(1) 자음탈락

- 'ㄹ' 탈락 규칙 : 'ㄹ'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
 - (합성/파생)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의 'ㄹ'탈락 : 끝소리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 (용언) 활용 과정에서 'ㄹ'의 탈락 : 'ㄹ'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ㅇ'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등글다 : 등그니, 등근, 등급니다
- (용언) 'ㅎ'의 탈락 : 'ㅎ'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
낳은 [나은], 놓아 [노아], 쌓이다 [싸이다], 많아 [마나], 앓은 [아는], 닳아 [다라]
- (용언) 'ㅅ' 탈락 : 원래의 형태소에서 'ㅅ'이 탈락하는 현상
긋다 → 그어, 잇다 → 이어 등
- (합성) 동음탈락 : 동음 중 앞자음이 탈락하는 형상
간난 → 가난, 목과 → 모과

(2) 자음군 단순화

- 1) ^ㅁ ㅁㅁㅁㅁㅁㅁㅁㅁ 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 값, 몫, 앉고, 외곶, 활고
- 2) ^ㄴ ㄴㅁㅁ 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
예) 삶, 읊지
- 3) ^ㄹ ㄹㅁㅁ 은 불규칙적 (<보기> 활용)

(2) 모음탈락

구 분	성 격	예 시
동음탈락	이어진 동음 중 뒤의 모음 탈락	가아 → 가
'ㅓ'탈락	어미 '-어' 앞에서 탈락	푸어 → 퍼
'ㅡ'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	쓰어 → 써

* 동음탈락 : -아서, -어서, -어라, -아라 등이 오는 경우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

(3) 음절의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

- 자음 축약 : 'ㅂ, ㄷ, ㄱ, ㅈ' + 'ㅎ' → 'ㅃ, ㅌ, ㅋ, ㆁ'
ex) 좋고 → [조코], 읊지 → [을치], 잡히다 → [자피다],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모음 축약 : 두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ex) 오+아서 →와서, 두+었다 →뵈다, 되+어 →돼, 가지+어 →[가져]

4. 첨가

[1]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성립하는 패턴]

0. 합성어

1. 접점에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함.
2. 발음상 조건 충족 (된소리, ㄴ첨가, ㄴㄴ첨가)

[조건1] 울림소리 + 안울림예사소리 (밤길, 눈사람, 코등)

[조건2] 모음 + 안울림예사소리 (벧사공, 촛불)

[조건3] 모음 + 울림소리(ㅁ, ㄴ) (이몸, 코날)

[조건4] 모음 + 모음 (가윗일, 예삿일)

[조건5] 뒷말이 'ㅣ'로 시작될 때 (논일, 물약, 아래이)

[사이시옷까지 붙이는 패턴]

- +3.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받침이 없을 경우)
- +4.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

— <보기>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ㄴ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가 들어가는 이중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ㄴ, ㄴㄴ이 발음시 덧난다.

예) 숨+이불, 눈+요기, 교육+열, 발+이랑(명사)

#3. 형태소

[배우고 있는 부분, 지도 그리기]

음운 - 형태소 - 단어 - 구, 절 - 문장

○ 형태소 : 뜻(의미)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의 최소단위)

1)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약간의 어근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의존 형태소 -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근, 어간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형식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형태

[반침의 유무로 구분]

책상 : 책상+을

의자 : 의자+를

[모음조화로 구분]

같다 : 같+았+다

먹다 : 먹+었+다

*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

[참고] 매개 모음 '-으-'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

⇒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4. 품 사

[품사의 패턴 파악]

기능 기준	형태 기준	9품사(의미기준)	필수 출제패턴 정리	
체언	불변어	명사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	
		대명사	인칭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알고 있나? 기본 지시대명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수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관계언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암기하고 있나?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독립언		감탄사	-	
수식언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나?	
		부사	문장부사를 알고 있나?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나?	
용언		가변어	동사	불규칙활용,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나?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나?

1.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의 출제패턴 정리

[1] 명사

- 유정명사 / 부정명사
- 보통명사 / 고유명사

※ 대로, 만큼, 뿐

- 의존명사 : 먹는 대로, 먹는 만큼 등
- 조사 : 너대로, 너만큼 등

[2] 대명사

① 인칭 대명사

- (ㄱ)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를 가리킴. 예) 나, 우리, 저, 저희
- (ㄴ) 2인칭 대명사 : 듣는 이를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 (ㄷ) 3인칭 대명사 : 다른 사람을 가리킴.

[이것만 기억하자]

미지칭, 부정칭의 구분 → **이무, 아무나, 아무거나** 등을 대입하여 말이 되면 부정칭
높임과 낮춤의 재귀대명사 기억하자! 기억하자!

- 예) 저이, 그이, 이분, 그분, 어느/누구(미지칭), 아무/누구(부정칭), 자기/당신(재귀)
- 예) [미지칭, 부정칭 구분이 필요한 단어] 누구/무엇/어디

② 지시 대명사 →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합성

[이것만 기억하자]

이 : 화자에게 가까운 것 지칭 그 : 청자에게 가까운 것 지칭 저 : 둘 다에게 멀 때

③ 대명사 품사의 통용

-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 열쇠가 여기 있었네!

[3] 수사

① 수사 품사의 통용

- 두 명이 여기 왔다.
-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2. 관계언(조사)의 출제패턴 정리

[1] 격조사 (무조건 체언과 결합하여, 자격(문장성분)을 부여, 생략가능)

- ① 주격조사 → 주어 : ~이, ~가, ~에서(단체), ~께서
- ② 목적격조사 → 목적어 : ~을/를
- ③ 서술격조사 → 서술어 : ~이다
- ④ 보격조사 → 보어 : ~이/가 + (~되다 / 아니다)
- ⑤ 관형격조사 → 관형어 : ~의
- ⑥ 부사격조사 → 부사어 : ~에, ~에서, ~에게, ~(으)로, ~와(비교) 등
- ⑦ 호격조사 → 독립어 : ~야 (중세국어 : ~하(존칭))

[2] 접속조사 vs 비교 부사격조사 구분

-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겹문장이면) 접속 조사이며
 바꾸어 쓸 수 없으면(홀문장이면) 부사격 조사
- 예) 나는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 ⇒ 나는 국어를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 예) 나는 철수와 비슷하다. ⇒ *나는 비슷하다. *철수는 비슷하다.

[3] 보조사 (어떤 품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조사, 생략불가)

- ① 어떤 특별한 뜻(일정한 의미)을 더해주는 조사
- ② 말하는 이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쓴다.
- ③ 말의 표현을 더 섬세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형 태	의 미	예 문
은/는	대조(주제)	사자는 맹수다.
도	역시, 동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	유일, 단독	너만 꼭 그런 짓을 한다.
요	상대높임	잘 먹었어요.

3. 용언(동사, 형용사)의 출제패턴 정리 (1)

(1) 용언의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 활용 :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
- 어간 : 활용시 변화하지 않는 부분
- 어미 : 활용시 변화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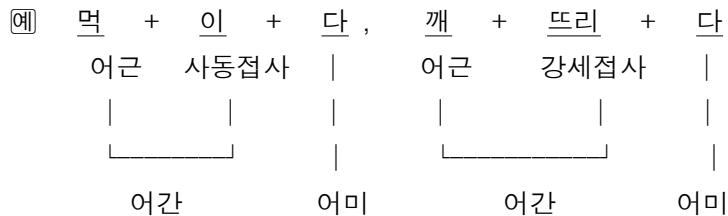
> 용언 외에 활용하는 نوم은? 서술격 조사가 있지~

> 피동, 사동, 강세의 접사가 붙는 말은 그 접사까지 포함하여 어간으로 본다.

- 먹이다, 먹히다, 밀치다, 깨뜨리다

어근(語根) 과 어미(語尾)

⇒ 어근은 접사의 상대 개념이며, 어간은 어미의 상대 개념이다.



(2) 어미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① 어말 어미의 갈래

- (ㄱ) 종결 어미 - 문장을 종결
- (ㄴ) 연결 어미 - 문장이나 구를 연결
- (ㄷ) 전성 어미 - 용언이 명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 ┌관형사형 전성어미 : -(으)ㄴ, -는, -(으)ㄹ, -던
 - | 명사형 전성어미 : -기, -(으)ㅁ,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② 선어말 어미

- ┌높임 : -시-
- └시제
 - ┌현재 : -는-/-ㄴ-
 - | 과거 : -었-/-았-
 - | 미래 : -겠-
 - └회상 : -더-

(3) 본용언 vs 보조용언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때,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지 /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 구분 필요

- 본용언 : 핵심적 의미, 자립 가능
- 보조용언 : 본용언의 뜻을 보완, 자립 불가능

예 나는 밥을 먹고 잤다. 나는 밥을 먹었다.
 _{나는 (잠을) 잤다.}

나는 철수를 따라가고 싶다. 나는 철수를 따라간다.(본)
 _{나는 철수를 *싶다.(보조)}

감상을 적어 둔다. 감상을 적는다.(본)
 _{감상을 *둔다.(보조)}

[구분하기 어려운 보조용언의 출제 패턴]

먹고 싶다, 보다 보니, 적어 둔다, 살아 왔다, 먹어 버렸다, 막아 내다

(4) 용언의 활용

[이것만 기억하자! 불규칙 활용 판별패턴]

- 기본형을 만들어, 어간을 도출한다. (긋다, 어근 ‘긋-’)
- 어간에 어미 ‘-어/아’를 붙여본다. (긋+어 → 그어, 어라! ㅅ이 탈락했네!)
- 변화없으면, 어간에 어미 ‘-는’을 붙여본다.

① **규칙활용** : 모습이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ㄱ) 모음 조화 : ‘-아/-어’의 교체

(ㄴ) 축약 : 보 + 아 → 봐

(ㄷ) 탈락 ㄹ 탈락 : 울 + 는 → 우는, 울 + 오 → 우오

_{\hookrightarrow 으 탈락 : 쓰 + 어 → 써, 치르 + 어 → 치러}

② **불규칙활용** :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불규칙적인 것.

(ㄱ)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ㄹㅅ 불규칙 : 잇+어, 낫+아

ㄷㅈ 불규칙 : 듣+어, 긴+어, 걷+어

ㅌㅍ 불규칙 : 굽+어, 줍+어, 뚱+아

ㄹㅂ 불규칙 : 흐르+어, 나르+아

ㄴ우 불규칙 : 푸+어

(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ㄹㅍ 불규칙 : 일하+어, 사랑하+어

ㄹㅊ 불규칙 : 푸르+어, 이르+어

_{\hookrightarrow 너라 불규칙 : -아라/-어라 → 너라 (오다)}

(ㄷ) 어간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ㅎ 불규칙 형용사 : 파랑+아, 빨강+아

#5. 단어의 형성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개념어	기억해야 할 패턴
합성어	의미상 구분	대등	- and로 연결되는 نوم들 (남녀, 여단다 등) · 명사+명사 → 외과 를 넣었을 때 의미변화 없음 · 용언+용언 → 고 로 연결했을 때 의미변화 없음
		종속	- and로 연결되지 않는 نوم들 (돌다리, 국밥 등) · 명사+명사 → 외과 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다름 · 용언+용언 → 고 로 연결했을 때 의미가 다름
		융합	- 사전적 약를 무시하고 완전 다른 약로 거듭난 합성어 (춘추 =연세 광음 =세월 모순 =앞뒤가 맞지 않음 등)
	형태상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	- 어미가 생략되고, 용언의 어간만 남은 합성어 - 부사+체언으로 구성된 합성어 -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결합된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외 나머지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기억해야 할 패턴
파생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뜻+	주로 접두사, 접미사 중 품사 못 바꾸는 نوم
		품사 변경	주로 접미사 (떡+이→떡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문장구조 변경	사동, 피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
		문장구조 변경+품사변경	사동,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용사 중 (예 : 높다 → 높다)

#6.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패턴 파악]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주성분	주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주어 파악
	목적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목적어 파악
	보어	체언+격조사	서술어 ‘되다 / 아니다’
	서술어	용언, 체언+격조사	서술격조사의 활용형태, 서술어 자릿수
생략불가	필수부사어	체언+격조사, 부사(~게)	서술어 자릿수와 연계하여 이해 필수적 부사어 감 잡기
	관형어	-	의존명사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일 때 - 단, 서술어 자릿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부속성분	관형어	관형사, 체언+격조사	관형어 : 용언, 체언, 관형사
	부사어	부사, 체언+격조사	부사어 : 용언, 체언, 부사

[서술어 자릿수, 필수부사어]

[1] 서술어의 자릿수 + 필수부사어

① 서술어의 자릿수

(㉠)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함.(자동사, 형용사)

예) 새가 운다. 꽃이 붉다.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함.(타동사)

⇒ 주어+목적어/보어/필수부사어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이 얼음이 된다.

그는 서울 지리에 낫다.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

주격,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수어 동사 - 주다, 보내다) ⇒ 주어 + 목적어 + 목적어/필수 부사어

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

필수적 성분의 부사어

-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 ...' 등은 '체언+과/와'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

(㉡) '넣다, 드리다, 두다, 던지다, 다가서다, ...' 등은 '체언+에/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 수어 동사는 목적어 이외에 '체언+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 '삼다, 변하다'는 '체언+(으)로'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였다.

(㉤)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체언+부사격조사'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여기다, 다니다, 주다, 부르다, 하다, 못하다, 바뀌다, 속다,
제출하다, 맞다, 적합하다, 선출하다, 어울리다, (-으로) 만들다,
일꾼다, (-이라) 이르다, (-와) 의논하다, (-에서) 살다

#7. 문장의 형태, 의문문, 부정문

[문장의 형태 패턴 파악]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패턴
홀문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문장 : 주어도 1개, 서술어도 1개 - 겹문장 :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은 주어와 상관없이 서술어가 2개 이상임. · 서술절이 안겨있는 문장만 서술어가 1개임. 주어는 2개
겹문장	안은-안긴문장	<p>[안은-안긴 문장에서 안긴문장 절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놈을 찾자! (용언 서술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놈이 명사형태(-음, -기)면 명사절! ·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절! ·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절! · 사람말을 인용했으면 인용절! - 서술절은 외워라! '코끼리가 코가 길다'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가 '되다'이다인 경우만 예외 (주어보여의 구조이므로)
	이어진문장	<p>[이어진 문장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and, but, 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외 나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

#8. 사동, 피동, 시제, 높임

[사동, 피동, 시제, 높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사동에서 기억할 패턴	<p>[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 장형 : -하게 하다 	<p>[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동문의 중의성 : 직접사동 vs 간접사동 - 신체일부 표현 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머리를 숙였다. 		
피동에서 기억할 패턴	<p>[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되 - 장형 : -어지다 	<p>[사동에서 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중과동 : 단형과동과 장형과동의 결합형태 - 사동접사 + 장형과동은 어중과동이아님 		
시제에서 기억할 패턴	<p>[절대시제, 상대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시제 : 발화시를 기준으로 판단 - 상대시제 :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 * 발화시, 사건시 개념 알아두기 	<p>[시제를 나타내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어말어미 사용 - 관형사형 전성어미 사용 - 시간부사어 사용 		
높임에서 기억할 패턴	높임의 종류	주요 출제 패턴		중세국어
	주체 높임	주어	선어말어미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 간접높임	높임대상의 소유물	선어말어미만 사용	
	객체 높임	목적어, 부어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상대 높임	상대(칭사)	종결어미, 보조사 -요 (저, 말씀)	선어말 어미 有

#9. 올바른 문장표현

[올바른 문장표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p style="text-align: center;">중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호준이와 윤석이를 놀렸다. ○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 ○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 나는 사과와 감 두 개를 골랐다. ○ 부정문의 중의성 예) 학생들이 다 안 왔다. ○ 진행과 완료의 중의성 예)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어법에 맞는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성분 갖추기 예) (부사어의 생략)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예) (서술어의 생략) 계곡에서는 수영과 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어의 생략)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문장 성분간의 호응 예) (주어-서술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부사어-서술어) 반드시 먹지 마세요. 절대로 먹어야 합니다. 비록 ~일지라도 ○ 이중피동

#10. 중세국어

[제자원리의 출제패턴]

1. 초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상형)	가획자 (가획)	병서자	이체자 (이체)
어금닛소리	ㄱ	ㅋ	ㄱᄂ	ㅇ
혓소리	ㄴ	ㄷ, ㅌ	ㄴᄂ	ㄹ
입술소리	ㅁ	ㄷ, ㅌ	ㅁᄂ	
잇소리	ㅅ	ㅈ, ㅊ	ㅅᄂ	ㅅ
목소리	ㅇ	ㅎ, ㅎ	ㅎᄂ	

- 병서자 : 나란히 쓴 글자
 - * 각자 병서 : 된소리(쌍자음)
 - * 합용 병서 : 다른 자음끼리 결합 (ㅁᄂ, ㅁᄃ, ㅁᄄ, ㅁᄅ 등)

2. 중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초출자(기본+기본)	재출자(초출+)
天(양성 모음)	ㆍ	ㅏ, ㅑ	ㅓ, ㅕ
地(음성 모음)	ㅡ	ㅓ, ㅕ	ㅗ, ㅛ
人(중성 모음)	ㅣ	·	·

3. 중성의 제자 원리

- 중성부용초성 : 초성을 다시 중성에 사용함.
- 8중성, 7중성법을 거쳐 현재는 중성부용초성

[중세국어의 특징 관련 출제패턴]

1. 초성의 제자 원리

- ① 사용되지 않는 자모음
- ② 어두 자음군 표기 **예** ㅼ들(15C)>똥을, ㅼ메(15C)>쌈에
- ③ 모음 조화 철저. **예** ㅅ조롱(15C)>자를
- ④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ㅼ디(15C)>펴지, 고태 > 고쳐
- 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스물(15C)>스물, 무지개 > 무지개
- 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예** 니르고져(15C)>이르고자
- ⑦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
- ⑧ 현대 국어와 다른 조사 사용 → 현대국어 격조사 파악으로 승부를 본다.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사용	예 등국에 달아(15C)> 중국과 달라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격 조사 '와로' 사용	예 文문字宗와로(15C)> 문자와는
주격 조사가 자음+ '이' / 모음+ 'ㅣ' / '∅'	예 흙·배(15C)> 할 바가, 뉘 > 산이, 새미 > 샘이
목적격 조사 을/를, 올/를	예 我后를 / 天下를

- ⑨ 현대 국어와 다른 어휘의 의미

의미 변화	예 어린: 어리석은(15C) > 나이가 적은, 어엿비: 가엿게(15C) > 불쌍하게, 예쁘게
	예 놈: 사람(15C)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영감: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 >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

- ⑩ 이어 적기(연철) 원칙.

이어 적기(연철)	끊어 적기(분철)	적기(중철)
말쌈미	말쌈이	말쌈미

- ⑪ 받침 표기

중성부용초성	8 중성법	7 중성법	중성부용초성
모든 자음을 중성에 사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모든 자음을 중성에 사용
곶	곶	곶	곶

- ⑪ ㅎ 중성체언
- ⑫ ㄱ 중성체언
- ⑬ 높임법의 변화
 -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
- ⑭ 병의 변화 **예** 새빙->새우, 더빙->더워
- ⑮ 명사형 어미 '움/옴' **예** 쑤메 > 쓰+움+에

#11. 로마자 표기 & 외래어 표기

[제자원리의 출제패턴]

1. 로마자 표기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ㅡ	ㅣ	ㅐ	ㅔ	ㅚ	ㅜ
a	eo	o	u	eu	i	æ	e	œ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ㅛ	ㅠ	ㅕ	ㅖ	ㅘ	ㅙ	ㅜ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wi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붙임 1]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